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②①

2017. 6. 21.(수), 14:00~16:00

임진왜란과 16~17세기 북동 유라시아

김 시 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㉔

임진왜란과 16~17세기 북동 유라시아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임진왜란과 16~17세기 북동 유라시아

- 『열국지』적 질서와 지정학적 요충지로서의 한반도 -

김 시 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임진왜란의 세계사적 의의

1592년에서 1598년까지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은, 단순히 일본 “민족”이 한국 “민족”을 침략한 전쟁이 아니었다. 임진왜란은 동부 유라시아 대륙에서 일본이라는 플레이어가 이 지역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음을 최초로 보여준, 바꾸어 말하자면 이 지역에서 해양 세력이 대륙 세력에 최초로 정면 도전한 사건이었다. 일본열도 세력이 부상하기 이전, 한반도 세력은 동부 유라시아의 주변부 세력으로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신라·고려 등의 왕조가 장기간에 걸쳐 존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정학적으로 외곽에 위치한 한반도의 안정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양 세력 일본이 세계 정복을 꿈꾸며 한반도로 들어오자, 한반도의 지정학적 성격은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 내·외부에서 조선왕조의 존재의미는 도전받았으며, 임진왜란에 이어 후금=청나라 세력은 일본이 실패한 조선왕조의 굴복을 이끌어냈다. 조선왕조는 이러한 내·외부의 도전으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았으나, 지배의 정당성을 상실한 왕조는 급속히 보수화되었다.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안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육지에 접한 면보다 바다에 접한 면이 훨씬 넓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어느 시기까지 한반도의 주민들에게는 바다보다 육지에 관심을 갖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유라시아 동해안에 자리한 사할린, 쿠릴열도, 일본열도, 오키나와 열도, 타이완,

필리핀 등 도서부島嶼部 가운데, 한반도 등 대륙부大陸部를 군사적·정치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하는 지역은 일본열도 뿐이었다. 그러나 일본열도의 주민들은 발달된 항해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한반도의 존립을 위협할 만한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없었다. 반면, 발달된 기마騎馬 기술을 보유한 유라시아 동부 평원의 유목 및 반半 유목세력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두 개의 천연 장애물을 손쉽게 넘어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고려 및 조선 왕조는 한반도 북부에 군사력을 집중시키는 반면 동·서·남해안에는 왜구와 같은 소규모의 간헐적 침략을 대비할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는데 그쳤다. 이것이 임진왜란 초기에 한반도 남부의 방어가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였으며, 한반도 북부에 배치되어 있던 군대가 남하를 시작하여 임진강에서 일본군과 충돌한 음력 5월 이후 일본군의 진격 속도가 늦어진 이유였다.

전근대에 유라시아 동부의 해안 지역에서 가장 강한 무력을 지닌 일본은 한반도의 삼국시대부터 여러 형태로 한반도의 군사·정치적 움직임에 간여하려 하였으나, 백제의 멸망과 함께 그러한 시도는 좌절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라·당과 백제·일본이 충돌한 663년의 백촌강 전투는 일본 세력이 대륙 진출에 좌절한 첫 번째 시도이다. 한편 한반도에 통일 세력이 등장한 이후에는 일본 열도 서부에서 왜구라는 해적 집단이 등장하여 동중국해에서 활동하였으나, 이들은 북유럽 3국의 바이킹 세력들이 러시아, 노르망디, 시칠리 등 유럽 각지에 항구적인 정착지를 확보한 것과 같은 움직임을 동중국해 연안 지역에서 전개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것이 일본 열도의 세력이 대륙 진출에 좌절한 두 번째 시도이다.

임진왜란은 일본 열도 세력이 대륙부로 진출을 시도한 세 번째 사건이자, 유라시아 동해안의 해양 세력이 한반도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 최초의 사건이었다. 이 시기에 인도·필리핀·일본 등지에서 활발한 선교·식민 활동을 전개하던 포르투갈·에스파냐 등 유럽 세력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유럽 세력의 발달된 군사력과 지구 전체를 조망하는 그들의 세계관을 빌려왔다. 그리하여 중세 일본인이 생각하던 ‘전 세계’인 인도·중국·한반도·일본을 모두 지배하려 했다. 여기서 당시 일본인들이 인도라고 믿은 것은 오늘날의 인도차이나 반도로, 이 시기에 일본인은 유라시아 동해안의 남쪽 지역인 태국·필리핀·베트남·말레이반도 등지에 거주하며 현지 세력과 정치·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임진왜란 첫 해인 1592년 당시 히데요시는 일본인에게 알려진 세계를 모두 정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이 목표는 1592년 중순경에 한반도 북부의 정예병이 남하하고 명나라의 동부를 지키던 군대가 한반도로 진입하면서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은 전쟁의 목표를 한반도의 분단과 남부 지역의 지배로 전환하였지만 그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일본 열도의 세력이 대륙 진출에 좌절된 세 번째 시도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전까지의 두 번의 시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 조선·명이 해양 세력인 일본 세력에 대응하는 사이에 만주 지역에서 아이신 기오로 누르하치의 여진인 세력이 흥기하였다. 그리고 결국, 한족의 명나라가 멸망하고 타이완의 독립이 상실되는 100년간의 연쇄반응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다. 또한 임진왜란의 실패로 인해 몰락한 도요토미 정권에 이어 등장한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인의 활동을 억제하고 포르투갈·에스파냐 세력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등 내향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그때까지 동남아시아에서 활동하던 일본 세력은 소멸하였으며 이 지역에서는 오로지 포르투갈·에스파냐 이후의 유럽 세력과 중국 세력만이 외부 세력으로 남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임진왜란은 중세까지의 유라시아 동부 지역의 질서를 붕괴시킨 전쟁이었다. 그리고 유라시아 동남부 지역의 이러한 혼란을 틈타, 러시아는 아무르강(흑룡강) 이북을 확고하게 판도에 넣을 수 있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하, 임진왜란이 유라시아 동부에 초래한 국제 질서의 변화를 시간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86년에는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수립되었고, 1592-98년 사이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1598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퇴각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3년 뒤인 1589년에는 아이신 기오로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을 통일했다. 임진왜란으로 명과 조선의 견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 1599년 누르하치가 건주여진의 대부분을 복속시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한 뒤 실력을 키우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00년에는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일본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1614-15년의 오사카 겨울·여름 전투에서 도요토미 가문의 잔존 세력이 완전히 패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이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 세력은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그들이 유라시아 동부에서 촉발한 국제 관계의 변화는 만주에서 본격화되었다.

1619년에 명·조선·해서여진(여허)과 누르하치 세력이 사르후에서 충돌했으며, 이 전투에서 승리한 누르하치는 여진을 통일했다. 그 후 명나라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던 누르하치는, 1626년에 영원성 전투에서 패하고 사망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명나라와의 전면전에 앞서 후환을 없애는 한편, 약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1627년에 조선을 공격했다(정묘호란). 10년 뒤인 1636년에는 징기스칸의 옥새를 손에 넣어 만주인·한인·몽골인의 황제로 등극하고, 1636-37년 사이에 조선을 재차 침략한다(병자호란).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후금 측은, 이 전쟁이 조선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며 후금은 정당한 전쟁을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비석인 “대청황제 공덕비 Samjeondo Monument, Daicing gurun i Enduringge Han i gung erdemui bei”를 한강 남쪽에 세웠다.

한편, 중세에 동남아시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던 일본인 세력은, 일본 열도에서 쇄국 움직임을 강해지면서 새로운 이민이 오지 않게 되자 쇠퇴하기 시작했다. 1630년에 타이 아유타야 왕국의 왕위 계승에 개입하던 일본인 야마다 나가마사가 독살당하고 아유타야의 일본인 마을이 철거된 사건은 이러한 경향을 촉진했다. 일본에서는 1637년에 규슈 시마바라에서 발생한 가톨릭교도의 봉기가 진압되었다. 이 진압 전쟁에서 막부를 도운 프로테스탄트 국가 네덜란드는 나가사키의 데지마에서 교역을 허가받았다. 이로써 유라시아 동부의 정치적 변동을 일으킨 일본 열도의 세력은 안정기에 들어선다. 그러나 그들이 유라시아 동부에 가한 충격타는 점점 확산될 터였다.

중원에서는 1644년에 농민반란을 일으킨 이자성이 베이징을 점령하자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숭정제가 자금성 북쪽의 경산에서 자살했다. 명나라와 후금의 경계인 산해관을 지키던 오삼계가 후금에 항복하자, 홍타이지는 숭정제의 복수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만리장성을 넘었다. 이로부터 명청 교체가 본격화된다. 이에 맞서

중국인 해적 정지룡과 일본인 여성 다가와 마쓰 사이의 혼혈인 정성공이 명나라 부흥 전쟁을 수행했다. 정성공은 1661년에 타이완에서 네덜란드 세력을 추방하고, 이곳을 명나라 부흥 전쟁의 거점으로 삼았다. 에도 시대의 일본인은 일본인의 피가 섞인 정성공을 국성야라 부르며 친숙하게 여겨 연극 및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았다. 1673-81년 사이에는 청나라에 투항하여 명나라 멸망에 공헌한 바 있는 한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모두 진압되었다(삼번의 난). 1683년에는 정성공의 손자 정극상이 청에 항복하여 타이완이 청나라의 영토가 되었으니, 이로써 명나라 세력은 소멸되었다.

러시아라는 플레이어의 등장

한편, 1650-51년에는 예로페이 하바로프가 아무르 강가의 알바진 요새를 점령했다. 청나라 군은 1652-53년에 러시아 세력의 거점인 아찬스크를 공격하기도 하고, 1654·58년에는 조선군과 연합군을 결성하여 공격하기도 했다(나선정벌). 청나라는, 한편으로는 명나라 및 기타 한족 반란을 진압하느라 러시아와 정면으로 맞설 여유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최후의 유목 제국인 몽골인의 준가르 칸국이 러시아와 연합하여 청나라에 저항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러시아 역시 영토적 야망보다는, 시베리아 및 북아메리카의 러시아 식민지에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해주고 러시아 상품의 시장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청나라와 안정적인 관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그래서 러시아와 청나라 양국은 1689년에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이 조약을 맺음으로써 준가르 칸국과 러시아가 연합할 가능성을 차단한 청나라는, 1755년에 준가르 칸국을 멸망시키고 동투르키스탄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계승되는 영토를 확립했다. 그 후, 러시아는 1858년에 아이군 조약,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현재의 영토를 확정했다. 이리하여 청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시킨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베링해협을 넘어 북아메리카로 진출했고, 또 한편으로는 사할린 섬과 쿠릴열도를 남하하여 일본 세력과 접촉하게 된다. 러시아 측은 일본을 식량 공급 기지이자 모피 판매 시장으로서 간주하여 국교 수립을 요청했으나, 일본은 네덜란드 이외의 유럽 세력과는 국교를 맺지 않는다는 전략을 고수했다. 그리하여 1806-07년에 양국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호보스토프 사건).

이로써 러시아는 유라시아 동부 지역 국제 관계에서 주요한 플레이어로 등장하게 되었고, 그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다.

『삼국지』적 질서에서 『열국지』적 질서로

임진왜란 당시 한반도는 대륙의 한족 세력이 유라시아 동해안의 해양 세력인 일본의 대륙 진출을 저지한 완충지이자, 해양 세력인 일본이 대륙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거점으로 기능하였다. 임진왜란 이전의 한반도는 한족 국가들과 북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반유목민들이 충돌할 때마다 피해를 입기는 했으나 이 두 세력 모두 한반도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고구려와의 충돌로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도 큰 피해를 입은 역사를 교훈 삼아 대륙의 한족은 한반도의 국가를 멸망시키고 이 지역을 직접 지배한다는 생각을 선택지에서 제외하였다. 한반도의 한민족 역시 대륙의 한족 국가를 외교적으로 존중하면서 독립을 유지한다는 외교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한편 북아시아 지역의 유목민·반유목민들의 경우에는 대륙의 한족 국가들이 최종적인 목표였으며 한반도 지역은 군사적으로 약탈하고 외교적으로 견제할 대상이기는 해도 완전한 정복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임진왜란 이전의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부라는 거대한 무대의 주변부였으며, 21세기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지정학적 요충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유라시아 동해안의 해양 세력인 일본은 대륙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반도의 완전한 정복을 꾀하였으며, 대륙의 한족 세력은 해양의 일본 세력을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한반도를 이용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임진왜란은 한반도가 유라시아 동부 지역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 대두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기존에는 중원의 한족과 만주의 비 한족을 포함한 중국, 그리고 일본 열도의 일본이라는 두 세력만을 염두에 두고 국제관계를 이해하면 되었으나, 이제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세력까지 포함하여 국제관계를 전개해야 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가 『삼국지 연의』의 세계에서 『열국지』의 세계로

바뀐 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이, 임진왜란이 유라시아 동부 지역에 가져온 두 가지 중대한 변화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인은 특히 러시아가 유라시아 동부에 항구적으로 자리잡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물이해가 현재 유라시아 동부의 국제 정치에서 한국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더 읽을 책

-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사계절, 2016)
 김시덕, 『동아시아, 해양과 대륙이 맞서다』(메디치미디어, 2015)
 박 훈, 『메이지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민음사, 2014)
 한명기, 『역사평설 병자호란』(푸른역사, 2013)
 김시덕, 『교감 해설 징비록』(아카넷, 2013)
 구범진, 『청나라 키메라의 제국』(민음사, 2012)
 김시덕, 『그들이 본 임진왜란』(학고재, 2012)
 한국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사계절, 2011)
 박철, 『16세기 서구인이 본 꼬라이』(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1)
 김호동,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돌베개, 2010)
 주경철, 『대항해 시대 : 해상 팽창과 근대 세계의 형성』(서울대학교출판부, 2008)
 루이스 프로이스 지음 정성화, 양윤선 옮김, 『임진난의 기록 : 루이스 프로이스가 본 임진왜란』(살림, 2008)
 정두희, 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휴머니스트, 2007)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청어람미디어, 2004)

Note

Note

【 2017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2017. 1. 25.(수)~12. 6.(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오후 2시~4시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의 제목	강사	비고
20	6. 21.	임진왜란과 16~17세기 북동 유라시아	김시덕(서울대학교)	
21	6. 28.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세시풍속	김명자(안동대학교)	
22	7. 5.	호란과 북벌, 그리고 북학	신병주(건국대학교)	
23	7. 12.	조선 후기 진경산수화의 아름다움	이태호(명지대학교)	
24	7. 19.	근·현대 서양복식사	권유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5. 30~8. 15.)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25	9. 13.	왕의 옷과 나라의 위상	이종서(울산대학교)	
26	9. 20.	18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예술 교류	김정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명품전 (9. 19~11. 12.)
27	9. 27.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이남규(한신대학교)	쇠, 철, 강- 철의 문화사 (9. 26~11. 26.)
28	10. 11.	조선의 목가구	황지현(국립고궁박물관)	
29	10. 18.	한국 복식의 국제성	채금석(숙명여자대학교)	
30	10. 25.	‘열하일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	김혈조(영남대학교)	
31	11. 1.	한국 석조미술 이해하기	양희정(국립중앙박물관)	
32	11. 8.	한국의 기록화, 계획도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33	11. 15.	조선의 名醫들	김호(경인교육대학교)	
34	11. 22.	대동법의 남자	최태성(EBS 역사 강사)	
35	11. 29.	한국 근대 미술의 역정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36	12. 6.	세계유산의 이해	이창환(상지영서대학교)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